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인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 잘들 살고 있습니까?

죽도록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한 곳만
봤는데,,,

나만의
영역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

화장실 6.1분

출퇴근 1시간 30분

근무시간 7시간 57분

앉아 있기 7시간 30분

하루 30분 이상 걷기 10명 중 4명

쌀밥 일주일에 6.52회

커피 일주일에 11.99잔

가사노동 여성 3시간 30분
남성 1시간

TV 3.6시간

독서 6분

수면 7시간 10분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더 열심히 살라고만 하는 한국 사회

1) 가족확장성

1) 가족확장성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뭘 안 했나? 내가 뭘 빼먹었나?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 너무 많은 노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e.g. 너무도 많은 SPEC!!

필요 없는 1순위「어학 연수, 자격증」

1) 가족확장성

수출 7위

무역규모 9위

무역 ICT흑자 1위

전력생산량 10위

전력소비량 9위

GDP 11위

1인당 GDP 29위

1인당 국민소득 약 28,000달러

.....

꽤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

출산율 35위

우울증 의심 56%

사회적 자본 85위

삶의 질 27위

사회갈등지수 2위

국민친절도 21위

(OECD국가 중 하위권)

자살률 1위

헬조선, 불반도, 7포 세대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 하락

1) 가족확장성

※ 가족확장성

가족을 사회의 중심으로 인식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족적 속성으로 인식하려 한다

이를 테면, 회사, 정부,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체계처럼 이해하려고 한다

e.g. 과거 폭풍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절,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국가의 대통령도 아버지처럼 등 사회를 가족처럼 여기는 경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애가 끈끈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회 문제들을 가족성으로 이해하려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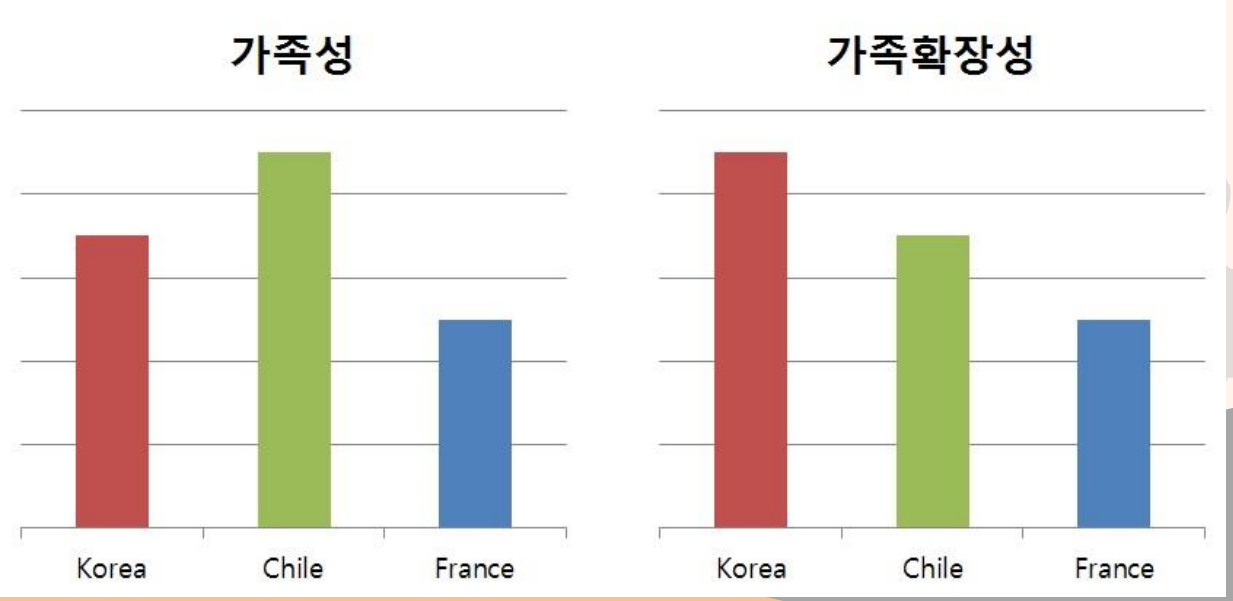
1) 가족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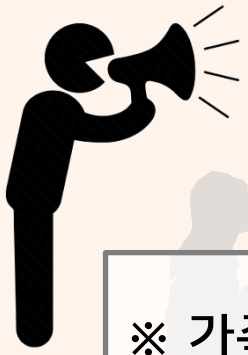
※ 심리학에서의 가족성

남미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남미국가들이야말로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출세보다도 가족 옆을 지킨다.

반면, 한국의 '고모!, 이모!, 어머니!' call 문화

>>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성으로 *친밀함, 친절함, 선악유무, 도움유무*





1) 가족확장성

※ 가족확장성이 높은 이유? *유교적인 사상 때문*

Quiz. 군사부일체의 의미

①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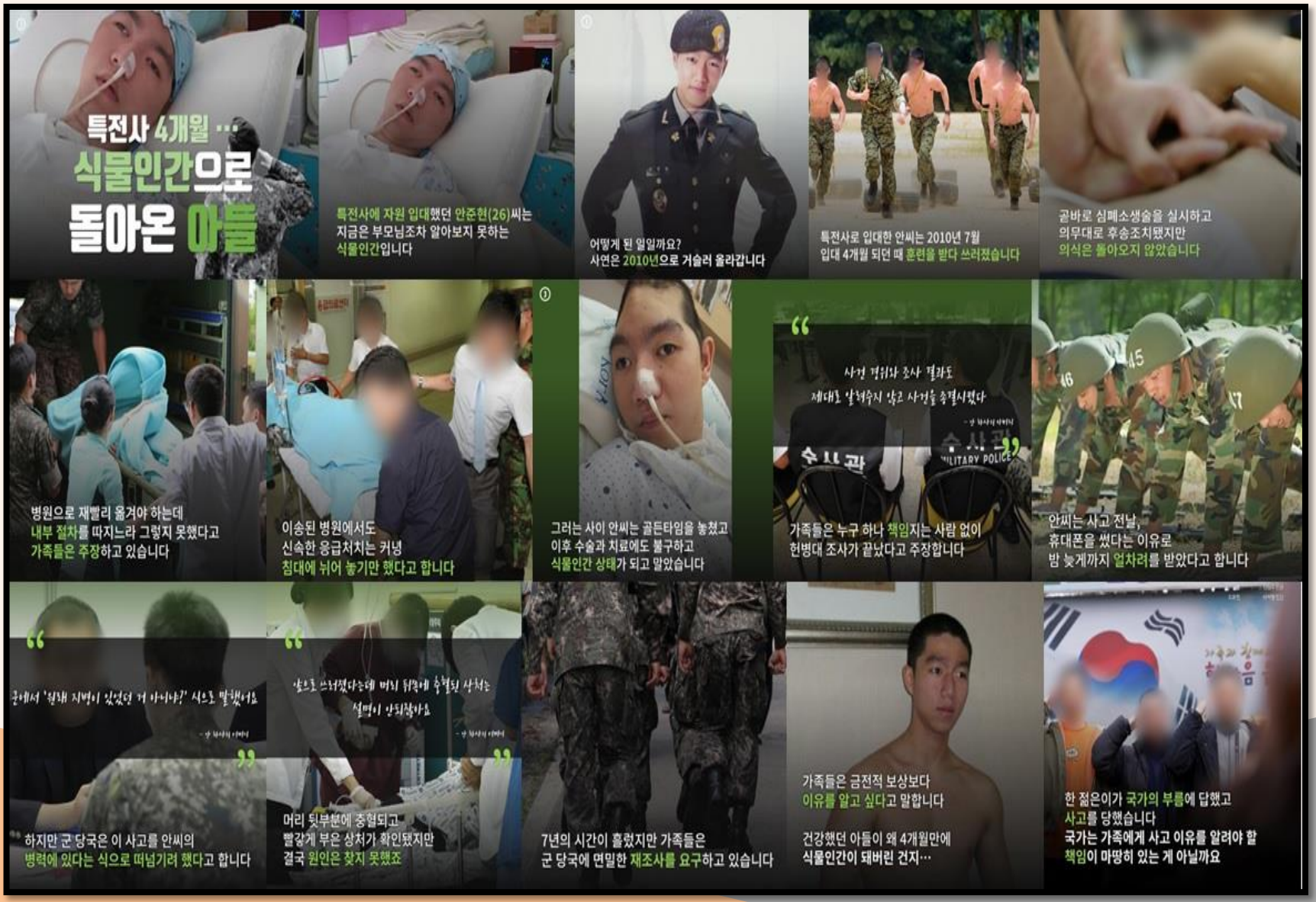
② 임금과 스승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 사회 곳곳에 녹아있는 가족 확장성

e.g. "특전사 보낸 아들,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오다"

君師父一體

1) 가족확장성


특전사 4개월…
식물인간으로
돌아온 아들
특전사에 자원 입대했던 안준현(26)씨는
지금은 부모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식물인간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전사로 입대한 안씨는 2010년 7월
입대 4개월 되던 때 훈련을 받다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의무대로 후송조치됐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재빨리 옮겨야 하는데
내부 절차를 따지느라 그렇지 못했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송된 병원에서도
신속한 응급처치는 커녕
침대에 뉘어 놓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안씨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후 수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접수와 조사 절차도
제대로 밟지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가족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헌병대 조사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안씨는 사고 전날,
휴대폰을 썼다는 이유로
밤 늦게까지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사고를 안씨의
병력에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려 했다고 합니다
머리 뒷부분에 충혈되고
빨갛게 부은 상처가 확인됐지만
결국 원인은 찾지 못했죠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은
군 당국에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금전적 보상보다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건강했던 아들이 왜 4개월만에
식물인간이 돼버린 건지…
한 젊은이가 국가의 부름에 답했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국가는 가족에게 사고 이유를 알려야 할
책임이 마땅히 있는 게 아닐까요

1) 가족확장성

큰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이건 말이야, 우리 한 번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보자.

나는 몰랐고, 걔가 그러다 그렇게 된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

의심의 시작, '뭔가 큰아버지가 한 거 같은데…'

큰아버지는 자녀의 죽음 앞의 부모가 스스로 책망하듯 스스로를 자책해야…

>>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자 당연한 것*

한국에서는 가족확장성을 기초로 리더를 뽑는다

>>> 특권을 용인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리더란 부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1) 가족확장성

가족확장성이 잘못된 것일까?

NO!! 가족확장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이 회사, 이 나라 전체가 내 가족이다"

나한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오늘도 가족을 위해 죽으라고 달린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도 놀라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피, 땀, 눈물 덕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더 이상 가족확장성으로 관리하기에는 우리의 규모나 시스템이 *너무 커졌다!!*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더 열심히 살라고만 하는 한국 사회

1) 가족확장성

2) 심정중심주의

2) 심정중심주의

※ 심정중심주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공유를 중시하고, 행동보다는 그 의도와 정서를 고려함

'내 마음 알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서운해한다.

한국은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e.g. 누군가 베푼 친절에도 꼭 따진다

욕쟁이 할머니 - 스스로 욕 먹으로 찾아간다

2) 심정중심주의

※ 진심을 알고 진심이 통하면 좋은 사회?

과거에는 긍정적. Why? 집성촌이었기 때문

현재는 더 이상 진심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심을 느끼고 싶어한다면??

>> 오버하기 시작.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고 강력하게 진심을 전달

"더! 더! 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맡은 역할만(!)하는 사람이다?

>> 그 사람은 정이 없고 인간미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

진심을 따지기 한 순간부터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가니 매우 피곤하다

2) 심정중심주의

※ 서비스 종사자 '고객님, 사랑합니다!'

한국사회가 자꾸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라고 강요

>> 진심은 매우 주관적이기에 고객에 대한 배려 기준이 모호

콜센터 상담직원의 90%가 쌍욕을 들어도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Why? 고객응대 매뉴얼의 부재 때문. 각자 나름대로 진심을 파악

>> "쟤는 된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해?" 끊임 없이 진심을 요구

2) 심정중심주의

※ 인고의 착각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

극소수만이 성공한다. 인고의 시간 자체는 성공의 요인이 아니다.

그 고통의 내용이 성공의 요인이다. 구체적인 노력이라면 보상받을 것이다.

한국정서에는 이득과 보상을 따지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

Why? 하늘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

모든 사회가 노력을 강조하기는 한다. 능력과 운을 강조하면 움직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운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크다.

>> 노력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

2) 심정중심주의

BUT, 노력만 강조하다 보면, 착각적 통제감이 발생한다!!

>>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거처럼 믿고 싶어하는 착각

e.g. 대학진학률, 40%의 직장과 70%의 대학졸업자의 미스매칭

>> 사회는 무한 채찍질, 부모는 허리띠 졸라매기,,, 사회는 나몰라라

※ 한국에서의 가난의 대물림

열심히 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e.g. 대학졸업장→좋은 직장 취업 실패→기술습득→누군가의 임대→빚

> 직접 책임질 수 밖에는 없지만, 혼자 책임지라니 억울할 뿐

한국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배신감의 늪에 빠지다

>>> 이건 명백한 사회의 책임

2) 심정중심주의

※ 세대 및 사회갈등의 핵심

지금의 젊은이와 그 부모들이 한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

Why? 모든 사람이 가라는 길로 갔는데, 이제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 사회의 리더와 지도층, 사회 시스템은 계속 업데이트된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덕목이 필요, 길잡이 역할

BUT, 현실은 다 될 것만 같은 희망 고문뿐이고 냉혹한 현실만이 존재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충전을 위해 놀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

1) 가족확장성

2) 심정중심주의

3) 관계성

3) 관계성

※ 한국이 사춘기인 이유

한국의 현실은 사춘기 '가치관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기'

>>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가치관을 확립

신념이 뚜렷할수록 인내가 높음.

만약, 통제하는 힘이 약화된다면, 先행동, 後생각,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였을 뿐, 깊이 있는 생간은 뒷전으로...

사춘기의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가치를 찾을지, 어떤 건강한 사회로 자랄지

>>>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

3) 관계성

※ 기-승-전-집단주의? 집단 vs 관계

당신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대부분 보편적이며 평균치보다 높은 특징을 선택

※ 집단 속 탈개인화

집단 속 군중의 경우, 개인보다는 집단 속 1인으로 보는 인식

e.g. 일본은 사람을 역할로 보고, 한국은 역할로 보는 것이 적다

일본 집단주의 > 한국 집단주의(?)

※ 관계성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e.g. 상대방에게 '뭐 먹을거야?'라는 질문과 그에 따른 행동변화

3) 관계성

※ 기술의 언어와 소통의 언어

e.g. 밥 먹었어? vs 안 먹었어?

서양은 나의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한국은 소통의 문화와 경청의 확인시스템이 추가

※ 정부, 기업 vs 일반

e.g. 광우병 사태 '광우병 걸릴 확률' vs '생명불안에 따른 감정적 표현'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 차이에 따른 불통

>> >한국적 집단주의 속 관계주의 이유는 바로 소통 중심의 한국어 때문

내가 누군지 알아?

1) 가족확장성

2) 심정중심주의

3) 관계성

4) 주체성

4) 주체성

※ 주체성이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성향

초기 동서양 비교는 일본과 미국을 기준으로 시작 한 후, 일반화 시킴

서양인들의 주체성: 자율성(개인의 자유, 권리, 선호 등 중시)

동양인들의 주체성: 집단 속의 조화, 화합 등 중시

e.g. 점심메뉴 주문 '통일'

선택의 중요성이 서양인에 비해 약한 한국인

BUT, 한국인들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높다!!

4) 주체성

관계주의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 한국인이 가장 좋아 하는 말 "한턱 쏜다"

숨겨진 의도는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다'로 보통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의!! 한턱 vs 접대

전자는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후자는 존재감을 죽이는 날

한국에서 접대가 힘든 이유는 은밀하고 세련되어야 하기 때문

e.g. 타이밍 보며 선결제 스킬 발동

4) 주체성

※ 한국의 서열사회

서열사회인 것은 주인공이 누군지 가려야 하기 때문

반면, 일본은 조직 속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일 뿐

>> 아무리 상사라도 부하가 주인공인 경우에는 "낄끼빠빠" 센스가 있어야 함

※ 비현실적 낙관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이지만, 대부분 자신이 될 거라는 착각

>> 나는 할 수 있다, 나라면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사고로 경제발전에 기여

4) 주체성

※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 '주인공 의식'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원칙대로 행동하는 일본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거부감이 일본인에 비해 없는 편(일본인은 생각과 표현에 인색한 편)

e.g. 교통사고 사망률 - 한국인은 스스로 법을 만든다

외국인이 보기엔 준법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실은 한국인의 준법의식이 준법의식보다 주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법이 잘못됐을 뿐

4) 주체성

※ 주체성의 양면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의 원인

매뉴얼대로 쓰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 전 세계 기술제품의 활용도는 최고

"될 거 같은데? 써야지, 내가 보기에 되겠는데?"

온 국민이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최대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 기계도, 몸도, 마음도 모두 그렇게 사용, 즉 매일 150%를 사용

유례없는 성장의 기초에 관계성과 주체성이 기여했고, 이것이 '너, 나 알아?'로 바로 갑질의 극단적인 형태가 되다.

4) 주체성

※ 세대갈등의 원인은 주체성 때문

기성세대들은 한국에서 1호라는 자부심

작

>>

<행복의 조건>

나 자신을 인정하자!!!

>>

함께 고민하고 인정해줄 사람을 주위에 두자

못하는 사회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1) 가족확장성

2) 심정중심주의

3) 관계성

4) 주체성

5) 복합유연성

5) 복합유연성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만 보고 달렸기* 때문

※ Fast Follower: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기업

※ Fast Mover: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한국의 유력 신제품을 따라가는 경향은 놀라울 정도!!

>> 패스트 팔로어를 잘해서 가성비 최고의 물품생산에 기가 막힌 기술 보유

BUT, 한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퍼스트 무버로 이동의 필요성 증대

이제는 세계 최초를 지향

>> 한국은 세계 1위 제품 개수: 정체상태/ 중국은 점점 증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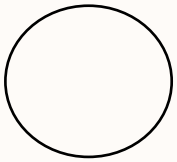
퍼스트 무버가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e.g. 첫째 아이 vs 둘째 아이

5) 복합유연성

※ 복합유연성

양극적이고 직선적 관계보다는 순환적이고 복합적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

e.g. 직선 위 ———————— vs 원 위 

한국인들은 선택에 따른 포기를 꺼린다

e.g. 설문조사: Q. 외국어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

Quiz. 설렁탕 집의 김치 항아리는 공짜일까 아닐까?

>> 반찬을 따지는 한국인, '이왕이면 다홍치마'

5) 복합유연성

세상에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는 없다!! 어떤 일이든 대가가 따르는 법!

한국인들은 오늘만 보고 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된다

>>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고 자신을 채찍질 → 사회 곳곳에서도 나타남

e.g.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의 기준, 무처벌 오류, 처벌 오류

>> 득과 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If 선택에 따르는 위험 감수 사실을 모를 경우, 나쁜 일이 생긴다면?

>> 억울하다. 왜냐? 자신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

무조건 일이 일어난 원인만 찾기 시작

5) 복합유연성

하나만 보고 달린다 =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

e.g. 입시제도와 교육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1) 가족확장성

2) 심정중심주의

3) 관계성

4) 주체성

5) 복합유연성

6) 불확실성 회피

6) 불확실성 회피

※ 불확실성 회피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시하는 경향

e.g. 불법 다운로드 1위, 강의료 vs 회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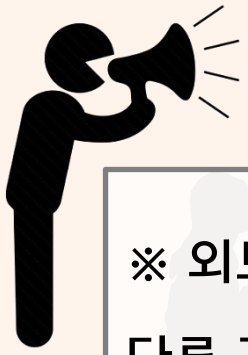
>> 자신의 손에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인하를 요구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 = 실체가 없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음

※ 종교의 부재 = 공통된 지배가치의 부재

대부분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

>> 지금은 공통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혼란과 고통의 연속인 것



6) 불확실성 회피

※ 외모 지상주의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약하기 때문

>> 삶의 원동력인 내재된 가치의 부재가 외적 가치에 치우쳐짐

>>> 영원한 2등의 한계 "2등은 항상 눈에 확 띄는 수치에 집착"

Quiz.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Quiz. 한국의 뛰어난 자동차 산업기술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것은?

1등의 기준은 퍼스트 무버가 정하고, 그 기준이 설정되면 기가 막히게 잘 따라가고, 더 작게, 더 얇게, 더 세게, 더 빠르게 잘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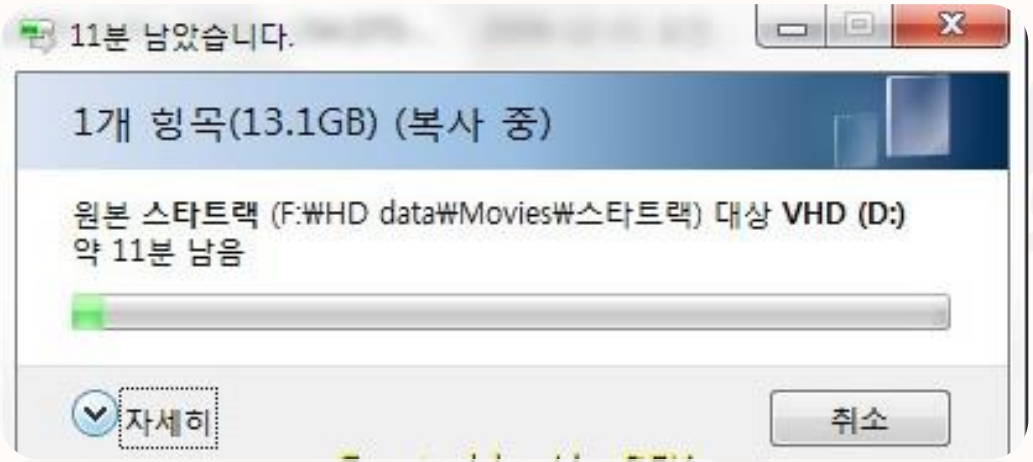
BUT,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6) 불확실성 회피

※ 왜? 라는 질문의 부재

6) 불확실성 회피

※ 왜? 라는 질문의 부재



6) 불확실성 회피

하드웨어 < 기술력 → 소프트웨어 비용을 더 지출하기 시작

>> 소프트웨어 능력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

e.g. APPLE 'iPod 2' vs SAMSUNG 'Galaxy S7'

두터운 팬층 얇은 팬층

>> 인간의 마음 경험 욕구 꿈에 무신경한 한국제품

※ 물건의 착각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물건이 가져다 줄 경험을 원한다!!

물건은 단지 경험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6) 불확실성 회피

※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 이유

하드웨어에서 더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는 기술에서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

>> 소프트웨어에 열망하고 있는 것

한국은 그간 기술만 잘 만들면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 위기에 봉착한 것……

>> 기술만 보고 달려왔는데,,,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아닌가 봐,,,,해서 당황한 것

6) 불확실성 회피

※ 현재 살아남는 시스템

① 가성비가 좋은 제품

② 최상의 브랜드 제품

>> 세계 1위 프리미엄 기업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제외한 어중간한 국가들은 모두 도태되는 시기에 위치

한국에서 대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는 대기업 제품만 사기 때문인데,

이미 전세계가 합리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다

>> 굳이 품질이 낮은 국산품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

>> 합리성과 가성비만 살아남는 사회

6) 불확실성 회피

기술로 세상을 이기겠다? 영원한 Looser!!

언제까지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극심한 세대갈등, 상호 존중하지도 존중 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시대 때문

>> 어른들의 경험이 통하는 세상이 과연 미래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

빨리 변화한다는 것은 빨리 성취할 수 있지만, 빨리 버려지는 시대라는 의미

6) 불확실성 회피

※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버린 것들의 역습

일본과 영국은 바꿀 이유가 확실할 때 새로 도입

한국은 오래된 것을 스스로 부쉈다

6) 불확실성 회피

※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버린 것들의 역습

문화와 가치란 '*효율성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

70년 동안 빠르게 변화해서 더 좋아졌는데, *고유의 특성*이 사라졌다……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것을 얻고 잃었는지 인식하는 일!!

>>> 나만의 가치, 나만의 이유를 찾아라!!

>> 한국의 유례없는 경제발전의 이유는 *온 국민이 전력질주*를 한 것!!

>> 무엇을 놓친 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 그 *놓친 것들이 돌아오고* 있다,,,

>>> 얻은 만큼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덜 억울한텐데,,,

나만의 영역 그리고 행복

※ 한국이 불행한 이유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e.g. 성적, 학벌, 아파트 평수, 차 종류 등

>> 비교하기 쉬운 물질적이고 명확한 기준들을 중시하다 보면,

타인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

BUT, 마음껏 착각할 수 있는 '나만의 영역'은 얼마나 해도 된다

>> 스스로가 마음껏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지름길은 오로지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지키며

누가 뭐래도 착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나만의 영역 그리고 행복